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사울왕이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시간에 사무엘이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왜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했을까?** 먼저는 본인이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것이 늘어가는 사무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된 것이다(삼상12:2).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뭔가를 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과 결단이 왜 중요한지 아는가? 사람이 기도 못할 수도 있다. 일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을 놓치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 바쁘기에 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하고, 그때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모르든지, 체험을 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다. 또 늙고 병들면 기도할 힘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가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시편의 절반을 기록한 다윗이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가 그랬고, 특히 고후12:8-9에 바울이 그랬다.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통해 반드시 두가지의 언약을 잡아야 한다.

1. 이 사무엘의 고백과 결단 속에 담긴 근원적 언약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한 언약이다.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것을 봐야 한다(눅24:44, 요5:39).

이 사무엘의 기도의 결단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예표이다.

1)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눅1:71,77, 골1:13-14).

이 일을 위해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된 것이다(히9:12).

마지막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기까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히9:15)

2) 본문에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언약은 그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상처, 연약함을 알고, 어떻게 우리의 욕심,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지를 아신 것이다.

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다(롬8:28).

② 보좌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다고 했다(롬8:34).

③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이다.

그래서 본문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22절)

이것이 개혁주의 정통 신학의 핵심이 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결론이다(“하나님의 견인”)

3)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실 때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마음을 담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중보 기도할 것을 결단한 것이다

① 성경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어떻게 대하실 것이라고 했는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천사를 사용해 하늘 보좌로 올라 가게 만들고(계8:3), 그 천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했다(사62:6-7).

②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내 현장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비밀이다.

그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죄라는 것이다.

2.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실제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 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체험해야 한다.

1)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비밀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가지 신분이 있다고 했다(수요 메시지 참고).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신분이다.

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창1:27, 요1:12, 롬8:15-17). 자녀는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관계이다.

② 하나님의 일꾼(종)의 신분이다(고전4:1). 이것이 기름부음의 축복이다. 영원한 하나님 계획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다

③ 하나님의 동역자, 동반자의 신분이다. 이 땅에서 만의 축복과 응답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들로서 서는 것이다(계22:5).

이 세가지의 언약과 축복이 내 인생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언약을 잡은 기도로 누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 수훈에서 기도부터 가르친 것이다(하나님과 그 나라를 누리는 주기도, 드러내지 않고 홀로

하는 기도,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비밀)

2) 이 기도의 축복을 위해 앞장 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영적인 리더들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요 종직자들이다.

우리가 내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파수 망대가 되라는 것이다(아4:4)

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살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 원수 마귀이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무너진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롬5:12, 요8:44, 엡2:1-3)

②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 그러나 대적해서 싸우면 도망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이다(창3:15, 고전15:25, 57).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이다(요일3:8)

사단의 꾀계를 분별하라. 그래서 깨어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다(엡6:18, 살전5:16-18).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도 지키신다고 했다(빌4:6-7)

③ 교회의 목회자와 종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이것이다.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우리의 대장되시는 그리스도

의 깃발을 들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과 싸워 이긴 여호수아를 위해 뒤에서 기도한 모세와 그 모세**

의 팔을 들어준 아론과 홀의 역할이다(출17:8-12). 아론이 모세를 돕는 부교역자를 상징한다면 홀은 종직자들이다.

모세가 기도하도록 팔을 받쳐주면서 그들도 함께 기도했고, 그때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하나 된 것이다.

그 결과를 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은 처절하게 무너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다.

결론-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동역자들인 성도들과 종직자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이다. 특히 언약을 가진 성도들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비밀이 이것이다(요15:7, 살전2:13). 그것이 목상 기도의 비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뺏기지 않고 승리자, 순례자, 정복자로 사는 비밀이다. 중요한 때이다. 기도의 손, 기도의 깃발을 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한다.